박대통령 3대 키워드 '북한·통일·새마을'

유엔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길 올라

한류 확산 통한 문화융성 행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유엔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총회 참석 등 지난 나흘간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문화원 방문을 끝으로 현지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존F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서울을 향해 떠났다. 공항엔 유엔총회 관련 추가 일정 수행을 위해 현지에 잔류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오준 주유엔대사, 김기환 주뉴욕총영사 등이 나와 박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첫 다자 해외 정상외교인 이번 뉴욕 방문기간(25~28일) 중 유엔총회 일반토의와 유엔개발정상회의 본회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등 모두 3차례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對北)·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국제 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 의지 등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과 유엔개발정상회의의 상호대화를 함께 주재하고, 우리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엔개발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마련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도 참석하며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을 위한 '신(新)농촌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만찬, 반 총장 주재 기후변화 관련 주요국 정상 오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반 총장이 공동 주최한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 파키스탄·덴마크·나이지리아와의 연쇄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엔 및 각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접견, 현지 주요 연구기관 및 외교 관련 단체장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등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전시 및 K컬처 체험 행사에 참석 해외에서의 '문화융성' 행보에도 힘썼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 등 뉴욕 방문 일정에 대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외교정책을 국제사회에 설명함으로써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해 추석연휴(26~29일) 기간을 오롯이 해외에서 보낸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박지경기자jkpark@·연합뉴스

"잘 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이 26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꽃중의 왕 '모란' 고부가가치 식물자원 키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2019년까지 9개 품종 육성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모란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물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모란은 개화 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모란씨 기름은 식품, 화장품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재배 3년 이후부터 종자 수확이 가능하고, 최대 60년간 수확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모란씨 기름(모란유)을 고급 식용유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기후에 맞는 우량 종자 품종을 육성·보급하고 기능성연구, 식품원료 등록 자료 구축을 통한 자원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각, 노화홍 등 9개 대상 품종을 선정해 산림자원연구소 내 화목원에 증식하고, 모란유 생산량 조사와 건전 우량 품종을 길러낼 방침이다. 이와함께 추출된 모란유는 식용유, 올리브유와 비교해 분석하고, 기능성 연구도 추진한다.

모란은 현재 화순군내 일부 농가가 한약재와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2012년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했다.

강진군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영랑생가 주변 문학적 공간과 보은산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모란단지 및 사계절 모란꽃 피는 세계모란공원 조성을 구축하고 '영랑모란'의 브랜드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김치축제, 돈되는 축제로 치른다

내달 24일부터 5일간

해외바이어 초청 협약

'김치! 광주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10월24일~28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화 축제로 치러진다.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배추를 행사에 활용하고 해외 바이어들이 행사장에서 수출협약을 맺는다.

광주김치축제위원회(위원장 남성우)는 지난 28일 "산업화 축제를 표방한 올해 김치축제가 지역농업과 연계 강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김치타운 활성화 등을 목표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올해는 김치박물관, 김치체험장, 김치가공공장, 세계김치연구소 등 김치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다.

김치축제는 체험행사 등에 사용할 배추를 지역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농민과 김치업체는 김치원·부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어 상생하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는 고품질 친환경 김치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어 '일거삼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김치업체는 물론 농식품부 김치품평회 수상업체,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김치업체와 김치쿠키 등 세계 김치산업을 집약화한 산업관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광주시는 사전 행사로 지난 17일부터 5일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한·중 김치축제를 연 데 이어 이번 축제기간에는 헤이룽장성 관계자가 참가해 수출협약을 할 계획이다.

김치소비 촉진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김치향연, 김치먹짱, 김치텃밭만들기 각종 김치체험 프로그램과 전문 요리 강사가 진행하는 김치쿠킹클래스와 김치아카데미도 열린다.

김치타운 활성화를 위해 개최장소를 중외공원에서 김치타운(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옆)으로 옮기고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콘텐츠도 보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동산 투기 사실과 달라, 준비기간 짧아 확인 못해"

허성관 연구원장 후보자 해명

시·도지사, 내주 초 임명 결정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다음달 5일 이사회를 열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작성한 청문보고서와 허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인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허 후보자는 2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명 여부는)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다만 청문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생각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추가 소명자료에서 그는 "가격을 낮춰 신고해 특혜를 받았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상도동 아파트 전세 가격과 관련 보증금 5000만원에 추가로 월세 80만원을 냈다는 계약서를 뒤늦게 찾아 사본을 첨부했다"며 "서울 마포구 다세대 주택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뒤 2년이 지나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자는 또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증여 미신고,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실정법이나 관계 기관의 행정 절차를 잘 몰라 벌어진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 출범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파장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3차 공모에서 적임자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자는 "만약 원장에 임명된다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원의 존재를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지역 연구와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반기문 대안론 재부상?

박대통령 유엔총회 기간 7차례 만나

귀국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일정을 거의 함께하면서 정상외교전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 기간 두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모두 7차례나 된다.

박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도착 이후 첫 일정으로 반 총장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유엔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26일),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26일),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27일), 유엔총회 기조연설(28일),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28일),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28일) 등의 일정을 반 총장과 함께 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번 유엔 무대에서 북핵 문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새마을운동,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교감하고 서로 호흡을 맞추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반 총장이 적극 추진 중인 SDGs와 신(新) 기후변화 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기여의지를 밝혔고, 반 총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촉진에 유엔이 지원하고 성공하도록 기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도 교감외교를 펼쳤다. 반 총장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개인경험담까지 소개하면서 "맨해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때마침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SBS가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 신뢰수준 95%, ±3.1%포인트) 반 총장이 21.1%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반 총장이 그동안 대권 도전설을 거듭 부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내년 대선과 관련 교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박지경기자jkpark@·연합뉴스

전남도 내달 요양기관 172곳 일제점검

전남도는 29일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39개소, 실습기관 133개소 등 총 172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기관의 교육생 출석관리, 실습 확인서 적정 여부 등 교육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출석부 허위 조작 등 교육과정 부당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생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